

낙태와 교회



김길수(생명운동연합 사무총장)

김길수 목사는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고 합동측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현재 발산중앙교회 담임목사이며 낙태반대운동단체인 새생명사랑회 회장과 생명운동연합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 살해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다. 대중이 세월호 사고에 분노한 이유는 304 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내 몸은 내 것이라고 하면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낙태를 자유화하라는 소위 검은 옷의 시위를 하며, 청와대 게시판에 23만여 명이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청원도 올렸다. 5월 24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청원에 청와대는 기다렸다는 듯이 임신 12주까지는 다른 국가들도 허용한다면서 낙태죄 폐지에 무게를 두고 낙태 문제를 공론화 하겠다고 했다. 조국 수석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고까지 했다. 청와대가 국민

의 생명권을 보호하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여성이 낙태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것은 태아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고 갑질이다. 이는 사실상 태아를 살해할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람을 죽일 권리라는 것이 가능한 말인가?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있어서 경제 문제는 경제정책으로 해결하고 복지 문제는 복지정책으로 해결하고 성 문제는 교육의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생긴 문제를 낙태로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성에게 있어서 피임을 할 권리는 있어도 낙태를 결정할 권리는 없다. 낙태는 생명에 대한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기 임신의 해결책은 아기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제거하는 것이 맞다. 이에 생명운동연합은 낙태죄 폐지반대 성명서를 다음과 같이 냈다.

낙태라는 강도를 만난
태중 사람의 이웃,
가장 작은 자의 보호자,
생명의 파수꾼이 되는 것은
이 시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요청이요
명령이요 사명인 것이다.

1. 여성의 임신 및 출산 등 몸에 대한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형법 제269조, 제270조의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결국 태아의 생명을 해칠 뿐 아니라 여성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것이기에 낙태죄 폐지를 강력히 반대한다.

2. 태아와 여성 모두를 희생자로 만드는 낙태죄 폐지는 가정, 사회, 국가에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야기하기에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낙태죄 폐지를 강력히 반대한다.

3. 인간생명의 시작은 수정된 순간이기에 모든 잉태된 생명은 공동체로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그 생명이 태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협하는 낙태죄 폐지를 강력히 반대한다.

4. 미혼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양육 책임법 제정, 한 부모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임신부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 낙태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국가의 낙태죄 폐지를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시대적 사명

사실 한국에서 낙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1960년대에서부터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논리를 앞세워 낙태를 인구 조절의 수단으로 삼았다. 즉 낙태 드라이브 정책을 취했던 것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낙태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며, 이제는 인구절벽의 시대가 온 것이다.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된 낙태죄 폐지 논란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무엇이라 응답할 것인가? 낙태가 한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 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한국교회는 이 문제에 대하여 거의 함구해 왔다. 물론 일부 단체에서 기독교 이름으로 낙태에 대해서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한국교회가 교회에서, 특히 강단에서 낙태 문제를 언급하는 예는 거의 전무하다. 십여 년 전 한 세미나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했던 외침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나는 교회를 다닌 지 30년이 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명의 존엄성이나 낙태에 대한 설교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성경은 그 시대마다 교회에 부여된 사명이 있다고 가르친다. 에스겔은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에스겔을 그 시대의 생명의 파수꾼으로 삼으신 것처럼 한국교회도 이 시대에 생명의 파수꾼으로 사명을 지는 것이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 이니라” 하셨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교회가 강도 만난자의 이웃이 되라고 하셨다.



그렇다. 이 시대에 낙태라는 강도를 만난 태중 사람의 이웃, 가장 작은 자의 보호자, 생명의 파수꾼이 되는 것은 이 시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요청이요 명령이요 사명인 것이다.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영적전쟁에 교회가 앞장서야

성경은 낙태를 무엇이라고 규정하는가? 한마디로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출 20:13, 5:17) 고 한다.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중사람을 낙태케 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그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낙태는 살인이다. 낙태는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그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멸시하는 것이다. 생명의 가치가 무너지면 기독교적인 가치도 설 곳이 없어진다. 그래서 낙태문제는 사탄이 기독교적 가치를 무너트리는 최고의 무

기이다. 생명의 가치를 지키지 못하면 창조의 가치, 복음의 가치는 무너지는 것이다. 기독교세계관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일은 기독교 변증의 최전방인 것이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낙태가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혹은 “낙태문제는 사회의 문제인데 왜 교회에서 낙태 문제를 말하는가”라고 질문한다. 한국에서 낙태문제에 자유로운 곳은 없다. 교회도 낙태 문제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이 시대에 가장 작은 자가 태중사람이다. 생명을 구하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영적인 문제다. 낙태 문제는 죽음의 문화 대 생명문화의 전쟁이고 기독교세계관 대 유물사관의 전쟁이며, 하나님의 나라 대 사탄의 나라와의 싸움이다. 영적 전쟁이 생명 분야에서 진행 중인 것이다. 생명이 죽으면 복음도 전할 수 없다.

지금 낙태죄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고 연일 언론에 보도되지만 한국교회는 이 낙태문제에 대해서 잠잠

하다. 천주교에서만 낙태죄 폐지반대 100만인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교회가 태중사람을 지키는 곳입니까? 교회가 낙태반대운동을 해야 합니까?”라고 말하는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24:11-12)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¹¹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 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¹²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 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 각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낙태죄를 끊지 않고는 거룩한 나라 영적 제사장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사회 구성원 전체가 낙태문제의 희생자다. 태아는 낙태로 인해 삶의 권리를 영원히 박탈당하고 낙태를 한 여성은 정신적, 육체적, 영적 후유증으로 고통당한다. 의사는 결국 태아를 살해했다는 압박감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고통당한다. 결국 가정과 사회, 국가, 교회 우리 모두가 희생자가 되는 것이다.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 존엄성을 회복하는 생명운동이야말로 한국교회가 해야 하는 마지막 신앙운동이다. 이 땅에 생명문화를 만들고 그 생명을 지키는 일을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한다.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생명을 멸시하는 것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낙태에 대해서 언제까지 한국 교회가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을 다물 것인가? 생명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낙태 문제에 대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4:14)”하시지 않겠는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그리고 행동하라!

한국교회는 이제 일어나야 한다! 낙태로 죽어가는 태중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한다. 각 교단은 생명 보호 위원회를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교회가 생명을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크리스찬 언론은 낙태 문제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해야 한다. 각 교단 신학교에서는 신학생들에게 낙태문제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 기독교연합단체에서는 생명의 존엄성과 낙태 문제에 대하여 연합적으로 사업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 교회에서 생명의 존엄성과 낙태 문제에 대해서 교육과 설교를 주기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태중사람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바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하는 성령님과 태중사람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행동해야 한다. 낙태죄 폐지반대 서명에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돌들이라도 일으키실 것이다. 5만 교회 700만 성도는 낙태로 죽어가는 17만의 태중사람을 가슴에 품고 통곡하며 회개해야 한다.

주여! 우리의 피 흘린 죄를 용서하소서!

생명을 위해 부르짖어야 한다. 낙태문제는 영적 전쟁이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도전하는 것이다. 개인의 영성, 교회 공동체의 영성, 가정의 영성을 송두리째 빼앗는 영성 파괴범이다. 1년에 17만 명이 되는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한 태중사람을 위해 부르짖어야 한다. 그리고 외쳐야 한다. 낙태는 살인이다. 낙태를 멈추라! 